

특집



◆ 인동 한국학 연구원

‘해외 한국학’ 지원 늘린다

정치·사회·과학·경제 영역 확대...해외 중핵대학 50개 선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2월 11일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글로벌 한국학 육성’ 사업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한국학이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보편성을 연구하는 종합 학문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브랜드’ 개선 사업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학 자체가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글로벌 한국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학은 좁은 의미로는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 문화적 정체성 등을 연구하는 ‘국학(國學)’을 말한다. 국어, 국문학, 국사, 국악, 민속학, 한국미술사, 한국철학 등이 중심을 이룬다.

넓은 의미로는 ‘국학’을 포함해 우리의 근현대사 등을 포함한 현대 한국학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연구활동 등을 포함한다.

본래 영역인 ‘국학’ 분야와 함께 한국 현대사,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과학사 등이 영역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 등 ‘자국학(自國學)’의 해외 전파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데서도 알수 있듯이 ‘글로벌 한국학’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학문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중국 등 ‘자국학’ 해외영역 확대 집중 지원

지금 우리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각 일본학, 중국학

의 발전과 확대에 예산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국의 ‘공자학당’은 ‘자국학’을 전파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자국학’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해외에 대한 공격적인 침투는 우리의 주권과 역사, 문화를 침해할 수 있는 독도 영유권과 동해표기, 동북공정 등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어 ‘한국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확대는 그 동안 학계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되어 온 ‘현안’ 중 하나이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자국학(自國學) 육성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일본재단’을 통해 해외 일본학 연구에 한화기준 약 310억원을 지원(2007년 기준)하는 등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 민간부문의 지원까지 합치는 경우 지금까지 해외일본학에 5,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외의 76개국 1,630개 대학에 일본학회가 설치됐다.

중국도 ‘중국학’의 지원을 늘리고 이를 해외에 알리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7년까지 64개국에 210개에 이르는 ‘공자학당’을 설립했다. 중국은 사업규모를 더욱 늘려 2010년까지 500개 설립을 목표로 2,600만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자국학’의 해외 확대는 일본과 중국 등 특정국가만이 관심을 가진 사업이 아니다. 이는 미주나 유럽의 국가도 다름바 없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학술교류처(DAAD)’를 통해 해외에 독일학, 독일어, 독일 지역연구를 촉진시키고 관련 교수법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3,700만 유로를 지원한 바 있다(2007년 기준).

정부 관심 부족...해외한국학 현실 부끄러워

이에 반해 우리 ‘한국학’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과 해외 현지 대학들의 노력으로 해외의 한국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학관련 강좌가 개설된 해외 대학은 약 2천여 개에 이른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학회도 30여 개에 이른다. 이 같은 양적인 성장은 뜻 있는 학자와 민간단체, 대학과 해외 교포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

늘었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었으나 그 규모나 관심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여러모로 열악하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정부의 ‘외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한국학’은 이를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비 등 양적 측면에서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비해 그 비교가 낯 뜨거울 정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중·일 프로그램의 운영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학을 1로 했을 때, 중국학은 45, 일본학은 69이 이른다. 교수 숫자에 있어서도 차이는 매우 크다. 한국학 3명, 일본학 11명, 중국학은 20명이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한국학은 일본학이나 중국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이 부족하다. ‘한국’의 턱없이 부족한 관심과 지원은 이를 연구하거나 연구하려는 해외 학자들의 의지와 관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주된 이유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정부의 부족한 지원과 관심은 해외 대학과 학자들의 의면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우리 문화 전체에 대한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 문화와 역사에

특히 동양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일본과 중국, 베트남과 태국, 인도음식에 대한 요리책은 더욱 다양하다. 그러나 파리 시내 대형서점 중 한국 음식이나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치’와 ‘순두부’는 알아도 이를 알려주고 그 요리법을 알려주는 책은 없다.

연구비, 장학금 등 지원 적어...교수 부담 크고 우수학생 선발 어려워

지금까지의 현실만을 본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다 할 수는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의 한류바람을 타고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유리한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우리 국민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고은 시인의 경우는 우리 문화작품과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27개국 50개 ‘한국학세계화랩(Lab)’ 운영

교과부가 추진하기로 한 ‘글로벌 한국학’ 육성 사업은 이 같은 ‘한국학’의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학과 국가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한국학’을 해외 보급 확대와 한국학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 날 발표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학세계화랩(Lab)’ 확대운영, 한국학 ‘해외 중핵대학’ 확대, ‘한국학’ 취약지역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한국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한국학세계화랩(Lab)’ 사업을 확대한다.

‘한국학세계화랩(Lab)’ 사업은 ‘해외 한국학’ 육성 사업이다.

세계적 석학을 중심으로 연구단위를 만들고 이를 장기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학문성과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기능도 담당한다. 내년에는 5개를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10년간 모두 27개 국가에 50개 랩을 운영한다.

‘해외 중핵대학’ 육성 사업은 이른바 ‘글로벌 한국학’의 ‘거점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교과부는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사업을 강화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중핵대학’은 지금 7개국 14개 대학에서 운영중이다. 교과부는 이를 내년 17개 대학으로 늘리는 등 해마다 규모를 늘려 2016년에는 전 세계에 모두 50개 ‘해외 중핵대학’을 선정·지원할 예정

이다.

교과부는 이 사업에 대해 ‘해외 중핵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외 각 대학 사이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고 전했다. ‘해외 중핵대학’의 신청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한국학 전공자를 우선 채용하는 현상도 나타날 정도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북유럽 등 한국학 취약지역 지원도

‘한국학’ 취약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 한국학’ 지원에 있어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 기준업적, 제도적 기반, 연구계획서, 연구진 구성 등의 평가항목을 중시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이러한 취약지역의 한국학을 육성시키기 어려워 앞으로는 한국학 연구가 취약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한국학 취약지역을 연구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나 관련 학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교과부는 내년에 한국학 취약지역 시범 사업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과 쿠웨이트의 전공자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덴마크 등 북유럽 5개국이 공동운영하는 노르딕 아시아연구소(NIAS, Nordic Institute for Asian Studies,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의 한국학연구를 지원한다.

교과부는 아같은 ‘글로벌 한국학’ 육성 사업이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는 ‘해외 한국학’ 발전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원석 기자 ws@eduyonhap.com



최상의 재료와 최선의 요리 질로서 고객님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 맛 · 멋 · 가격 · 위생 · 대민족 - 주미정의 맛과 맛 서비스에 취해 보세요!

- 상건제, 가족모임, 각종단체모임 최적의 장소
- 250명의 넓은 공간 홀마다 형형색색 멋스러운
- 식후 비즈니스는 무료 커피숍에서 푹푹 앉게
- 80여명 동시수용 주차장은 언제나 여유만만



부천종합운동장사거리(신안)에서 3거리








주미정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98-3 | 예약문의 (032) 682-8838